

고 은 영
 건축사사무소 가진
 by Ko Eun-young, KIRA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Reflecting the 12th General Meeting of Korea Female Registered Architects

흐르는 것은 세월만이 아니고, 자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가 싶다.

십수년 전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단한 미래를 장담하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무사히 잘자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처럼 조 심스런 기대로 시작되었을 걸음이 벌써 열두번 째 발자국을 남기며 키가 훌쩍 자라 이제는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아이처럼 든든하게 자라가고 있다.

그저 선배님들 귀염 받고 따라 다니셨다는 분들이 이제는 회장, 부회장, 이사가 되어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선배의 선배님들은 든든한 버팀 목이 되어 자리하고 계시고, 해마다 젊은 후배들의 얼굴이 새롭고 반갑기만 하다.

올해도 전국에 흩어져 건축의 일선에서 울고 웃는 우리 여성 건축사들은 약속된 시간에 하나들 환한 얼굴로 반가움을 대신했고, 오랜만에 서울에서 럭셔리(?)하게 개최될 이번 행사에서 받을 감동과 도전을 맘껏 기대하며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일정은 건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의 중심에 서있던 프로젝트를 위주로 일정이 짜여져서 더욱 흥미로웠던 거 같다.

처음 우리가 경험 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광화문에 있던 일제 치하의 건물이 대신하던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의 존치문제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어 세간에 화자 되던 프로젝트였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내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정림건축의 김진구 부사장에게서 설계과정에

대해 직접들으며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니 건물의 스케일에 대해 생소함과 부러움이 같이 밀려옴은 내가 설계하는 건물과의 차이가 너무 큰 탓인가...

가랑비도 좀 오락가락하고, 생각보다 단체 관람객이 많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눈을 두눈을 반짝거리며, 두귀를 쫓긋 세우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

언제나 남의 것에는 말이 많은 법, 우리는 삼삼오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겠느니, 저것은 저래서 좋으니, 수다에 가까운 의견을 나누며 그래도 역시 건축은 참으로 많은 요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당연한 진리를 새삼 느끼며 서울의 심장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서울의 중심으로, 중심으로...

유신정권시 덮어 씌우며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위세등등 했던 고가도로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수도세를 내며 유유히 흐르는 청계천에 도착, 인공의 냄새 물씬 풍기는 청계천과 청계천문화관을 견학했다.

청계천을 바라보며 아담한 사이즈로 서있는 청계천문화관은 청계천의 물빛갈기도 하고, 청계천의 물결 갈기도 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지친 발걸음을 쉬게 하는 쉼터가 되면 좋을 거 같다.

다음은 청계천을 따라 시내를 관통하여 광고 부근에 하차하여 청계천의 끝자락을 만끽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프라자호텔에 짧은 여정을 풀며 서울에서의 밤을 맞이 하였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프라자호텔 22층 연회장에 단장을 한 모습으로 모여 제12차 여성건축사대회를 시작하였다.

박영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서울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를 비롯한 관심있는 내빈들의 참여와 격려로 자리가 더욱 빛났고, 사회시설지원금의 전달과 감사패 전달로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였고, 말미에 아카펠라 공연의 감동까지 이어져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의 뜻깊은 행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우리들의 선배님으로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따라가기에 든든한 문숙경 여성건축가협회 회장님의 격려사와 감사보고 그리고 차기 개최지로 강원도를 결정함으로써 총회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3부 토론회에서는 우리 회원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얘기들을 들으며 친목을 다지고, 서울 중심의 밤 나들이를 위해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정기총회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자유 시간!!

각자의 취향대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청계천 등으로 흩어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밤을 마무리 하였다.

다음날 아침, 전날의 피로함을 깊숙이 숨기고 푸짐한 뷔페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인 삼성리움미술관으로 향했다.

리움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사 램쿨하스, 장누벨, 마리오보타의 건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슴 떨리는 기회였고, 연세대의 민선주 교수의 설명은 건물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기념촬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엇보다도 설계진행의 숨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장누벨 건물의 자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들, 스텐레스에 녹을 입히는 실험들은 흥미롭기도 하고 그만큼 건축사의 발상을 존중해주는 환경이 부럽기도하고 하면서 한 공간 한 공간을 아끼듯이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세 개의 건물이 세 명의 건축사의 설계로, 한 대지위에 얹혀 있으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각각 독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작품을 이루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날마다 건축현장에서 현실과 부대끼며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에게 잃어버릴 뻔 한 건축의 열정과 이상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스스로에게도 해보며 햇살 좋은 남산 자락을 내려왔다.

다음은 마지막 일정으로 지 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간삼건축 사옥을 견학하였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시고 항상 든든한 큰언니이신 지 순 선생님의 일생을 보는 듯 하여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 길을 가고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중한 일정이었던 것 같다.

원정수선생님과 지 순 선생님 그리고 간삼건축 직원들의 친절하고 따

뜻한 접대와 맛난 식사 그리고 탁트인 옥상정원, 어디나 비슷한 설계사무실 풍경 등...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장면들 뒤에 지 순 선생님 같은 선배님이 계셔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훈훈하게 덥혀온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세파에 찌들어, 세상이 만만치 않아, 내가 하고 있는 건축이 실망스러워 침체되었던 마음 한 켠에 그래도 좋은 건물들은 세워지고 있고, 전국에 나와 같은 길을 씩씩하게 가는 우리 여성건축사 들이 있고, 자랑스런 선배님들이 계시는 것이 힘이 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내년을 한껏 기대해 본다. ㄷ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만찬



리움박물관 견학



리움박물관 견학



간삼건축사옥 견학